

문화유산 활용 '관광 활성화' 시동

익산시, 미륵사지·백제왕궁서
공연·체험 프로그램 열기로
향교문화지 활용사업·문화재
활용 교육 등 시민 참여 확대



익산시는 올해 백제역사유적지구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사진은 '세계유산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

역사문화도시 익산시가 지역의 풍성한 문화 유산을 활용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특히 시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에서 백제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정책을 강화해 500만 관광객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백제역사유적지구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백제왕궁에서는 1박 2일 동안 1400여년 전 백제를 만날 수 있는 '세계유산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 고즈넉한 밤에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세계유산 달빛 공연' 등이 펼쳐진다.

미륵사지에서는 세계유산과 디지털 IT 기술이 접목된 '미륵사지 미디어아트쇼(가제)'와 세계유산의 가치향유와 확산을 위한 세계유산 축전(8월중)이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의 숨겨진 문화유산인 함열향교 일대에서 진행되는 '향교문화재활용사업'은 백제왕도 1번지 익산, 함열향교의 3락(樂)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체험과 역사로 배우는 인문학, 대동한마당 등을 통해 지역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고 전통문화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과 시민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과 이리향채줄공룡류를 배울 수 있는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설공연인 '대한민국 농악축제', '이리농악 전승학교' 등을 개최한다.

이어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익산기세배, 익산 목발노래, 익산성당포구농악 등은 연중 교육생을 모집하며 무형문화재 전승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이고 공개행사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호와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고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도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이론강의와 체험, 답사 등으로 구성된 고도 시민아카데미,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찾아가는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또한 세계유산 고도육성보존관리 주민협의회와 함께 한지 등 공예제작 교육과 전시,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문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문화재야행, 서동축제 등에 참여자들의 작품 전시회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삼삼오오 우리 동네 프로젝트'와 '문화반장' 등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실현하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들이 누구나 문화유산을 즐기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문화유산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익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새만금'의 '새 축제'엔 '새로운 이름'을

내달 10일까지 새만금청 페이스북에 댓글로 누구나 응모 가능

새만금의 대표 축제인 노마드(NOMAD: 유목민) 축제와 함께 새만금의 문화예술, 관광을 선도해 나갈 새로운 축제가 탄생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준비 중인 '케이팝 페스타'인 새만금(가칭)의 새 이름을 25일부터 2월 10일(19일간)까지 공모한다.

'케이팝페스타'인 새만금(가칭)은 노마드 축제와 연계해 오는 9월(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에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노마드 축제의 정체성과 비전을 토대로 한류의 중심지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만금만의 특화된 상징성, 대중성, 지속성을 표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름을 발굴하기 위한 시도로, 이를 통해 타 지역 축제와는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누구나(국민 및 외국인) 응모할 수 있으며, 새만금청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DIA2013>)에서 축제 명칭 공모 게시글을 통해 댓글(명칭, 기획의도 설명)로 참여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20만원) 1작, 우수상(10만원) 2작에는 상품권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첫 선을 보일 '케이팝페스타'인 새만금(가칭)은 최정상급 한류스타 공연, 사 진행사(불업공연, 케이팝 가수 포토존, 상설행사)로 구성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예정돼 있다.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노마드 축제에 케이팝페스타인 새만금(가칭)까지 가세할 올해 새만금 통합 축제가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을 만들어 새만금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국장은 "새만금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는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양대사마실기 목판, 전북 문화재 되다

판각기법 훌륭하고 결락된 판목 없는 등 중요한 가치 지녀

남원시는 남원양씨 총장공과 종중의 양대사마실기 목판(梁大司馬實記 木板 208장 완본)은 개인 문집임에도 불구하고 왕명에 의해 간행된 목판으로 판각기법이 매우 훌륭하고 결락된 판목도 없는 등 중요한 가치를 지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 판본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의 의병 양대박(梁大樸: 1544~1592)에 대해 심환지 등이 간행한 11권 5책으로 구성된 책을 1799년(정조23) 왕명에 의해 판각한 것이다.

양대박은 남원출신 의병으로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담양에서 고경명을 만나 맹주로 추대하고 북상해 5월에는 전주에서 의병 2천명을 모은 바 있다.

특히, 그는 고경명과 함께 금산에서 왜적을 맞아 싸웠고, 양대박은 아들 양경우와 함께 진산을 지키게 되나 의병을 모을 때의 피로로 진중(陣中)에서 병을 얻어 진산에서 49세에 사망하게 되고 이후 총장(總喪)이란 시호를 받는다.

의병 양대박의 사적이 담긴 양대사마실기 목판은 현재 결락된 책판 없이 총 208장의 목판으로 구성됐으며, 판각이 정교하고 서체가 미려하고 정조의 명에 의해 제작된 것이어서 희소성이 크고 조선시대 출판문화와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목판의 판각 깊이는 대략 0.4~0.5cm 정도로, 동시대에 판각된 다른 목판에 비해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확실한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1796년 양대박 부자의 충의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양대박 부자 충의문'은 2000년 11월 17일 도 문화재자료 제170호로 지정됐다"면서 "우리 시는 이번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양대사마실기 목판'에 대해 소유자, 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전주마당창극 '오! 난 토끼 아니오' 주·조연배우 공개모집

전주문화재단, 판소리·연기 등... 내달 4일까지 신청접수

전주문화재단이 2021년 전주마당창극 '오! 난 토끼 아니오(가제)'의 주·조연 배우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2012년 '해 같은 파도를 달 같이 들어 메고'를 시작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마당창극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이번 10번째 공연을 준비하며 주요 출연진의 전국 공개모집에 나섰다.

2021 전주마당창극 '오! 난 토끼 아니오(가제)'는 판소리 '수궁가' 중 한 대목을 판소리와 무용, 연기 등 다양한 요소로 재구성해 온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한마당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모집 부문은 판소리, 연기 등으로 2월 4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하며, 2월 9일 현장 오디션에서 최종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공연예술 관련 전공자' 또는 '전공에 준하는 경력자'로서 판소리, 노래, 연기 등 마당창극에 필요한 요소를 갖춘 자이다. 모집 규모는 주연 및 조연 등 15명 내외다.

선발된 출연진은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을 무대로 5월 말부터 총 15회의 공연을 함께 한다.

참가 희망자는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www.jcf.or.kr) 및 전주한벽문화관 홈페이지(www.jt.or.kr)에서 세부 요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mail@jt.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벽문화관 성영근 관장은 "작년은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온 국민이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2021년 전주문화재단의 마당창극이 공연예술 분야의 인재 발굴과 예술인 일터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움츠린 문화계에 새 숨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한벽운영팀(063-280-7012)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